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8월 9일 (제80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칠야주일에배 워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배움은 목적의 열쇠

고양이 두 마리에게 쫓기던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양이 두 마리는 쥐구멍 밖에서 한참을 야옹야옹 하며 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쥐가 나오지 않았다. 그 때 고양이가 한 마리가 다른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곧 쥐가 나올 테니 자네는 잡을 준비나 하고 있게.” 그러더니 짹짹 하며 새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 때 쥐가 쥐구멍 사이로 고개를 살짝 내밀며 주위를 살폈고, 그 때다 싶은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그러자 새소리로 쥐를 유인하여 잡은 고양이가 의기양양한 자세로 말했다. “여보게, 요즘 세상에는 말이야~ 최소 2개 국어는 해야 먹고 산다네. 자네 같이 고양이 소리만 내서는 굶어죽기 십상인 세상이야. 제2외국어 하나쯤은 필수라네.”

이 이야기는 지인이 내게 카톡으로 보내준 것으로, 나는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스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세상이고, 지구가 한 촌(村)인 세상이다. 요즘 화두는 단연 세계화다. 그런데 외국어를 모르고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을까? 외국어를 하는 것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며,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도구다. 외국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은 언제나 가장 빠른 시기다. 그래서 나는 나이 70을 바라보면서도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한다. 젊은이들이여!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어를 당연히 하듯,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방언을 하듯, 지구촌에서 외국어 또한 당연한 것이니 이제라도 준비하고 노력하라.

인류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다

“휴가내고 올라온 것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계산상집회 첫날 첫 시간 단에 오르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고, 설교 전 이미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해서 옥토가 된 성도들 마음 밭에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이 내렸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는 도전을 하게 하고 기적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에너지를 낳고 에너지가 다시 실천을 낳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가 더욱 건강해지고, 공부하던 자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것, 돈을 벌 어본 자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모두

하고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충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산중에서 토끼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배고팠던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토끼가 담대하게 ‘잠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래봐도 왕의 자식이야.’ 하자 호랑이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아! 내가 산중의 왕인데, 그럼 네가 내 자식이나?’ 하자 토끼가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봐봐.’ 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며 토끼를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토끼가 달리자 앞에 있던 노

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자각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충격을 에너지 삼았더니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자가 두려운 사람은 사업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수영을 배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무슨 일에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자들에게 ‘니 해봤노?’ 했다고 합니다. 도전하면 에너지가 창출되고 길이 보이는데 왜 도전하지 않는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365



2015 하계산상집회(8월 3일 ~ 20일, 예수중심기독교)

에너지는 더 큰 에너지를 창출하여 거대한 일을 이루는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을 에너지 삼지 못하고 충격에 주저앉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모사라는 식물처럼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성공할 수 없고, 환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입다,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 재판관에게 무시당한 과부... 이런 자들은 충격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 삼아 도전

하며 이리저리 모든 동물들이 다 길을 터주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토끼가 호랑이를 돌아보며 ‘봤지?’ 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의 말에 무릎을 꿇으며 ‘네, 왕자님’ 했습니다. 담대하면 호랑이 앞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에너지를 샘솟게 했고, 그 에너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며, 인생의 암적 존재입니다. 악한 것들은 저의 목회 생활 내내 저를 주저앉히려 하고 핍박과 모함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내가 사람으로 말

번 강하고 담대하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에너지 삼아 도전하십시오. 그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가 되어 큰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했던 심령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시원하게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온 킹슬리 플레처 목사의 설교가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었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영·혼·육의 보약을 먹는 산상집회



기도원을 방문한 미국의 플레처 목사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삼1:2)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닭을 키워라

어떤 사람이 제게 “목사님, 저는 설교제 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닭을 키워라’는 제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이 말씀은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이후 좀 더 나은 것을 취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지금 신나게 놀며 즐기고 싶겠지만,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배고플 때 계란 하나, 분명 당장 먹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유혹을 참고 계란을 오래 품으면, 날마다 계란을 줄줄이 낳아줄 닭을 얻게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놀 줄 몰라서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책을 파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비록 고생하고 힘들지만, 내가 목적인 바를 이루고 나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닭을 키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고 익히는 것이 희망이나 꿈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우리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배웠기에, 전쟁터에서도 공부했기에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릉선수촌에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이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몇 개월 동안 세상과 단절하며 피나는 훈련을 하는 이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저축 안 해도 됩니다. 저축을 해야 그것이 내일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골프치고 비싼 커피 마실 때가 아니다. 아껴라. 단 몇 푼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노후에 자식에게 손 내밀지 말고, 노후에 눈물바다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달걀 하나 입에 털어 넣지 말고, 저축으로 닭을 키워야 합니다.

어느 장로가 손녀 돌잔치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해 주식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돌잔치를 아는 것도 아니니 괜히 어른들 기분 내지 말고 아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

는 나 고 했더니, 그 장로가 제 말대로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것이 많이 올랐으며 목사님 말씀이 옳다 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콩 한 쪽이 있으면 나눠 먹지 말고, 그것을 땅에 심어 나중에 다발로 서로 나누라고 합니다. 셋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장사꾼은 돈을 보고 뛰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얻기 위해 뛰는 것이 다릅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얻는다는 심정으로 작은 구멍가게라도 운영해보세요. 얻은 사람으로 인해 구멍가게가 대형 슈퍼마켓이 될 것입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 아이가 가게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왔는데, 코를 줄줄 흘리며 왔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스크림만 팔 것이 아니라 코를 닦아줘 보세요.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가게 아저씨가 코 닦아 줬어요.” 하면 그 엄마가 물건 사러 큰 슈퍼마켓 안 가고 이 가게로 올 것이고, 옆집에도 “저 가게 아저씨는 사람이 됐어. 믿을 만해.” 하며 광고해 줄 것 아닙니까?

건설업을 하는 어느 회장은 아들이 실수

로 2천억을 손실해서 기업이 워크아웃(Workout)에 들어갔지만, 아들을 회사에서 자르지 않고 이를 수험료 삼으라고 격려했더니 그 아들이 4천억으로 갚겠다고 작심하며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돈보다 사람을 얻는 사업가의 배포가 멋있지 않습니까?

넷째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받을 왕권을 위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때 맞으며 정처가 없고, 후욕과 핍박을 당하며,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

으면서도 오직 뜻대로만 향하여, 곧 복음을 위하여 달린 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미래를 아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눅 22:30),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눅 19:17).’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요, 미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명예롭지 못한 많은 타이틀, 이단이요, 광신자라는 핍박과 모함을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외선교 드림팀의 일원인 김성자 전도사는 70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미에 갈 때마다 커다란 가방에 고추장이며 햇반이며 갖가지 밑반찬을 챙겨 미국으로부터 날아옵니다. 어느 날, 비행기 연착으로 고생한 김 전도사에게 “할멈은 왜 그 나이에 힘들게 이 일을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김 전도사는 일초도 망설임이 없이 “하늘의 상 때문이죠. 그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을 생각

하면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공일(空日)이라 부르는 주일을 지키는 것, 재미있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것, 생명보다 귀히 여긴다는 물질을 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모두 그 날의 상을 위해서입니다.

배고픈데 계란을 안 먹고 품고 있으면 남들이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바보라고, 미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라

말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입니다. 성공했을 때, 적금을 탈 때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땅을 치며 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찬송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말인데, 멀리 보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뜻한 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현재에 조급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부하십시오. 지금 저축하고, 지금 일하세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주의 일을 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 하십시오. 오늘부터 모든 면에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후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제 19회 전국 청년 대학 연합수련회 (7.29 ~ 31)
명품인생이 되는 젊은이가 되자!



..교단소식..

명품인생(名品人生)이란 무엇인가?

“명품인생을 사는 젊은이가 되자!”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라. 다시! 다시!”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예수중심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제19회 대학청년부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을 명품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명품(名品, masterpiece)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 물건이나 작품이다. 명품인생도 그렇다. 자기 이름을 걸고 멋지고 아름답게 이룬 삶이 명품인생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명품인생이다.

명품인생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명품인생이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명품인생이라 인증하신 이유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명품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

는 것이 아니다. 부단히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다. 명품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노력한 자들이다. 남들처럼 다 놀고, 다 자고 어떻게 꼭짓점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명인이나 달인들에게는 뼈를 깎는 노력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자.

셋째, 명품은 속만 좋은 것이 아니다. 포장도 좋다. 곧 품위와 품격이라는 음식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 명품인생이 되려면 거짓말이나 음담패설, 부정적인 말 따위는 하지 않아야 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해야 하며, 의상관리도 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네, 그 중 웃는 얼굴이 으뜸이다. 내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제일 교포인 양미자 권사가 한 끼에 12만 엔이나 하는 ‘행락원’이라는 일본 전통음식점을 예약해놓았다. 나는 목사가 무슨 호사냐며 거절했지만, 양 권사는 해약을 해도 돈은 물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 갔다. 그런데 총지배인이 우리 식사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내가

‘이 음식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웃음을 잃은 종업원을 자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총지배인이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이 행락원을 명품 음식점으로 만들기엔 충분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했다.

넷째, 명품인생은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맷집 좋은 자다. 나도 명품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나의 목회 30년은 그야말로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의 길이였다. 꾀박과 모함은 이루 말로 못한다.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는 명품인생의 자격이 없다(히10:39). 금광석이 멋진 장식품이 되려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42:11).

다섯째, 명품인생은 항상 점검하는 인생이다.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

고, 일 년을 돌아보면 평생 사고 나지 않게 되며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 된다. 나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이다.

여섯째, 명품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히13:8), 신앙이나 성품에 일관성을 갖는 자다. 한결같은 믿음과 열정이 요구된다.

일곱째, 명품인생은 결단하는 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결단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매듭지지 않는 실로는 절대 옷을 꿰뚫 수 없다.”

이번 청년대학부 수련회에서는 이관섭 장로와 정철준 장로, 허부경 권사가 자신들이 명품인생으로 살아온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주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준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는 목사님의 외마디가 귓가에 쟁쟁하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도전하는 태도

유아교육전문가들이 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쉬운 문제를 주며 '너 정말 잘 한다'라고 칭찬하고, 다른 그룹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주고 '비록 문제를 풀진 못했지만 끝까지 풀려고 하는 태도가 멋지다'라고 칭찬해준 것이다. 이후 두 그룹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주고 비교해봤더니, 쉬운 문제만 받으며 칭찬을 받던 그룹은 어려운 일에는 도전하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쉬운 것만 찾는 반면, 후자의 그룹은 어렵고 힘든 문제도 주저 없이 도전하는 긍정적인 '태도(atti-tude)'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도 지금 당장 마음에 좋은 칭찬보다 어려운 숙제들을 통해 도전정신과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신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쉬이 갈 수 있는 광야 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우기 원하셨고, 더 불어 군중 속에서도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

하도록 훈련코자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냥 때 지어 발길이 닿는 데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정확한 행진대열을 나누고 이동하며 부는 나팔소리의 방법까지 정해주셨다. 그리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심은 물론이요, 그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머무르심에 따라 행진의 여부가 결정되도록 가르치셨다. 이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등생이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과 가나안 점령 이후에도 지파별로 질서 있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흔히 비교되는 사울과 다윗도 그렇다. 별 어려움 없이 단번에 왕위에 오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명예와 권력의 힘을 맛

본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변질되어 하나님의 권위까지 스스럼없이 침범하며 멸망의 길을 걸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수없는 모함과 죽음의 위협 속에 시달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삶, 자신의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태도를 배웠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함께 후대에 길이 남을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존경 받고 있지 않은가? 칭찬에 취해 잘하는 일만 골라 안주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다. 당장 먹는 작은 칭찬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만큼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는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꾸 어려운 숙제를 받는 듯한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지금 당신은 가장 크고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특훈을 받는 하나님의 우등생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경고를 무시하면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8만 명이 즉사하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8만 명이 고통 속에서 죽어 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경고문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히로시마 상공에 여러 차례 뿌렸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에는 그 날 원자탄을 투하할 예정이니 시계 50km 밖으로 피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놈들이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 공갈을 치는 것이다.", "세상에 한방에 30만 명을 죽

이는 폭탄이 어디 있어?" 극소수 피난을 간 사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피난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정된 그 날에 서쪽에서 비행기가 날아와 원자탄을 떨어뜨렸는데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자 1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도시는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불행을 당했을까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벌의 세계인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치지만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퇴원할 날을 기다리고, 군대에 간 사람도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우리를 꺼지지 않는 무서운 지옥 불에서 건지시려고 간곡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언제 내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부분의 응급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응급한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갑작스런 심정지 상황에서는 환자가 숨을 천천히 쉼쉼대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도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가 있다고 하자. 먼저 119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자. 환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 반듯이 눕힌 후 가슴을 풀어주고 팔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젖꼭지 사이를 짚

지 긴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규칙적으로 누른다.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하고 누르는 깊이는 성인의 경우 약 5cm 정도 들어가게 누른다. 현재의 심폐소생술 권고사항에서는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흉부 압박만을 시행하는 것도 추천되고 있다. 심정지시 혈액 내에 녹아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흉부압박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면 외부의 산소공급 없이도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흉부 압박을 해주자. 인공호흡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시킨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은 30:2의 비율로 시행한다. 자동제세동기

가 있다면 환자에게 패드를 붙여 놓기만 하면 환자의 심전도를 기기가 자동 판독하여 간단한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도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다. 요즘은 자동제세동기가 구급차 및 공공장소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위급한 상황의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심폐소생술의 절차를 숙지하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일이 적겠지만, 만에 하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위기의 순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도록 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어머니의 발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면접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회사 면접에서도 떨어지게 되자 청년 실업자는 “늙으신 흠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회장이 뚝배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밤에 발을 씻겨 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회장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리는데 그 발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 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걸으셨던 길이 어디 천 걸음, 만 걸음 뿐이었겠습니까?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흔적들을 보면서 청년은 평평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음날 회사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 나오려는 청년에게 회장은 “되겠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기업 면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회장은 왜 청년을 채용했을까요? 꼭 효자여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고객에게도 관념이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세파에 지치고 힘든 불품없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틀한 사랑과 측은지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손으로 만져 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13:14).

하계산상집회

8월 3일(월) ~20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문의:02)533-9191